



정교회주보

제2554호

2025년 12월 07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사진 설명

성대 목요일 - 열두 복음

루가 제10주일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의 주교
(제1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주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208
- 사도경 : 에페소 5,8~19 (봉)336
- 복음경 : 루가 13,10~17 129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대 목요일 밤'에는 주님의 거룩한 고난이 기록된 열두 복음 구절을 봉독하는 엄숙한 고난 예식이 행된다. 복음이 차례로 봉독 되는 동안, 주님의 최후의 만찬과 배신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에 이르는 사건들을 영적으로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신자들은 촛불을 손에 들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다. 봉독 되는 복음 내용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참회와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

열두 복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랑에 동조하게 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희생을 마주하고, 고난 사건들에 깊이

감동받는다. 이 예식의 성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고난받으셨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깊은 체험을 통해,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곧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의 참된 목적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마태오 복음사가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까닭은 병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듯,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마태오 9,13). 모든 이가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존재로 변화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화(神化)’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변화는 없고, 변화 없이 신화도 있을 수 없다. 영성 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주님을 닮아 변모하여 신화에 이르는 데 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주님께 기적을 청하며, 주님의 강생 또한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자 창고를 열고 더 큰 것을 지어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한 것과 같다(루가 12,16-19).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적 치유, 사업 번영, 건강과 환희의 기적에 마음을 두기보다, 성만찬 예배 속에서 주님의 몸과 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참된 기적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이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근원적 전환이다. 사도 바울로가 열렬한 바리사이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 길로 나아간 것처럼, 회개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저주에서 자비로, 불친절에서 친절로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참되게 회개한 이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변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볼산에서 주님과 함께 창조되지 않은 빛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한 것처럼, 회개의 길은 모든 교부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이 그토록 갈망해 온 관상의 기도로 이끈다. 예수 기도는 쉼 없이 드리는 기도로서, 단순한 마음의 기도를 넘어 심장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많은 수도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향해 몸을 굽히는 자세는 바로 이 심장 기도, 즉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만나는 심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은 빛을 바라보게 될 때, 성 사로브의 세라핌 성인처럼 성령 안에 거하는 신화의 체험에 이르게 되며,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고백성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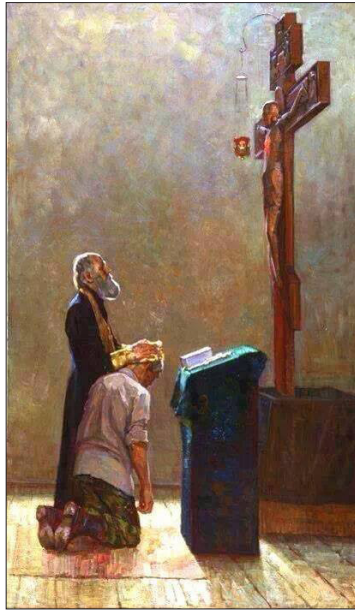
안토니 블룸 대주교(1914-2003, 영국의 수로즈)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앞선 대화에서 저는 모든 **고백성사**가 마치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성사인 것처럼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 계신 하느님과 모든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심판의 서막(序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고백성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는 어떤 죄를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먼저, 모든 고백성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고백이어야 하며, 어떤 일반적인 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판단하는 능력이 제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 양심의 심판에서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흔히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외면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리라고 결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서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



런 것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 진실, 친절을 선물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나?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나?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거짓 말을 하고, 그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판단하였나?’

이제 새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중 한 사람, 곧 하느님의 평범한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고백이 진지하고, 깊이 숙고된 것이며, 진실한 것이고, 유익하고,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고백성사에 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주변 상황은 오직 그것이 당신의 죄와 책임을 드러낼 때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은 죄의 고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은 당신 죄에 대한 감각과 회개의 정신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12월 7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오는 11일 (목) 축일을 맞이하시는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2월 12일(금)

성 스피리돈 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2026년 축일달력 발간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주제로 한 내년 축일달력의 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탁상용(국문, 영문)은 7,000원, 벽걸이(국문)는 15,000원입니다. 각 성당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양구 성당 철야 예배를 마치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 예배가 지난 11월 28일 (금)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대신부,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에피파니오스 수도신부, 크리스토퍼 보제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29일(토) 아침에는 1시과와 설교가 있었습니다. 참례해주신 분들과 축일 준비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알림

제1차 니케아 세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행사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비티니아의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28일 니케아에서는 세계 총대주교청 주관으로 제1차 니케아 세계 공의회(325년) 170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의 초청에 따라 레오 14세 교황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29-30일에는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의 성 게오르기오스 성당에서 거행된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성찬예배에 레오 14세 교황이 초청되어 참석했습니다. 이 축일은 세계 총대주교청에서 특히 중요하게 기리고 있습니다.

세계 총대주교와 교황은 폭력 반대, 세계 평화와 화해, 그리고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또한 개인 회담에서는 2033년에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2000주년을 맞아, 두 교회의 수장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로 논의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총회

제11차 정기총회가 지난 1일(월),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인사말에서, ‘교회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 겸손과 사랑과 기도로 교회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성의 샘터

가식 없는 선의

이사야 사부가 조언했다.

“그대는 가난한 형제에게 자선을 베풀 때 그대가 보여준 선의가 헛되지 않도록 도움받은 사람에게 그대의 일을 도와 달라고 청하지 말라.”